

## 이런 두통 봤어요?

(군집 두통)

25세의 젊은 청년이 자신은 두통으로 벌써 일 년이 넘게 고생하고 있다면서 찾아왔다. 얼굴은 하얀 편이었으나 왼쪽 눈자위가 몹시 붉고 동안 신경(제3뇌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눈꺼풀이 약간은 처진 인상이었다.

그는 모든 병원, 약국, 한의원을 다 다니면서 뇌 단층 촬영을 비롯하여 별의 별 검사, 약, 주사, 심지어는 침까지 수차례 맞아 봤지만 “나의 두통은 아무도 고치지 못 한다”며 아예 포기하듯 이야기했다. “어떤 병원에서는 나를 궤병 환자 취급했다”며 분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개인력(個人歷)을 청취하는 동안에는 그가 매우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원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젊은이들처럼 이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니며, 하다못해 자신이 기거하는 기숙사에서 신간 비디오 한 편 변변히 보는 습성이 없는 그야말로 ‘드라이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별의 별 병원을 다 다녀 봤다며,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약 써 보다 안 되니까 ‘애인은 있느냐’, ‘저축은 얼마나 하느냐’, ‘돈 벌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라”며 “그런 것이 도대체 내 두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하며 불만스럽게 내뱉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그런 질문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군집 두통(群集頭痛)환자 중 잘 낫지 않는 약 1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그의 편협하고 증상에 집착하며 외계에 무관심한 태도가 증상을 더욱 심한 악순환의 고리에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추측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당신의 두통은 잘 안 낫는 병이오. 일 년 이상 꾸준히 병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겠소”라고 말했다.

군집 두통(Cluster headache)이란 ‘군발성 두통’, ‘발작성 야간 두통’, ‘적(赤)편두통’, ‘편두통성 신경통’등의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는 ‘골치 아픈’ 두통이다. 주로 젊은 성인 남자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비율은 여자의 5배 정도가 된다.

통증은 일정한 한쪽 눈자위 깊숙한 곳에 잘 발생하며 이후 이마, 옆머리, 뺨, 드물게는 귀,

목, 후두로까지 퍼져 나간다. 이 통증은 편두통처럼 박동이 느껴지는 편이 아니며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통증이 시작되면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6 - 12주 동안 계속된다. 두통이 있을 때 코 막힘, 콧물, 결막의 충혈 또는 눈물이 흐르거나(流淚) 뺨의 홍조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증상은 일정한 기간을 채운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증상이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린다. 군집(群集)두통이란 용어가 그래서 생겼다.

하루 중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보통 45분 전후가 되지만 만성화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프다”라고 느끼게 된다. 군집두통 환자는 혈관확장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협심증 약으로 쓰이는 나이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e), 알코올 등에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또 치즈 등 타이라민(tyramine)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도 악화된다. 군집두통 환자가 통증이 있는 기간에 술을 마시면 곧바로 격렬한 두통이 발생한다.

이 군발성 두통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편두통과 달리 홍조를 띠는 점, 통증이 있는 쪽 안구의 안압(眼壓)이 증가된다는 점, 이마, 옆머리, 뺨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편두통과는 확실히 구분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실제 임상적으로는 그 구분이 꼭 정확하지는 않은 듯하다.

예의 그 환자는 초진 면담이 끝난 후 석 달도 더 넘어서 다시 찾아왔다. 밀저야 본전이고 더 가볼 곳도 없다는 심정으로 지친 얼굴을 하며 나타난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 모두 “별 것 아니다”라고 흘대받는 것이 서러운 나머지 골치 아픈 병이라고 인정해 주는 곳을 찾은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그 후로 기숙사에만 처박혀 있지 말 것, 취미 생활을 할 것, 애인을 구할 것, 힘들어도 약을 꼭 먹을 것, 회사의 불링 동호회에 꼭 가입할 것 등의 잡다한 요구 사항을 힘들게 이행해 가며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 2 년간을 다녔다. 지금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심하게 두통이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병원을 찾곤 한다.